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Title: “13. Wickedness and judgement”**

**Scripture: Genesis 6:1-8**

**Date preached: March 29<sup>th</sup> 2026**

**Scripture: Genesis 6:1-8**

**1** Now it came to pass, when me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2** that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beautiful; and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of all whom they chose.

**3**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for he *is* indeed flesh; yet his days shall be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4** There were giants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o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men of renown.

**5**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6**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7** So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oth man and beast, creeping thing and birds of the air,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8**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라

**3** 여호와께서 이르사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십 년이 도라 하사라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사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Review – The seed line of promise**

We have a very interesting and much discussed portion of scripture before us today. There have been whole books written on what these verses mean, and the implications that lie behind the various interpretations. But all of that is to come a little later. Let us first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In last week's sermon we looked at the genealogy (*toledat*) contained in chapter number 5 of Genesis. I did my best to breathe some interest and life into the topic. Given the limited amount of material we are given in scripture on these men it wasn't an easy task.

I hope you didn't find it too tedious. As I said to you last time biblical genealogies are often regarded by Christians as being a little dull and boring. We might be tempted to say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Who cares who fathered who? What's it to me?” As I said last time the genealogies we find in God's Word are very important. They help remind us that the scriptures are rooted in real history. The bible is not, “Once upon a time long long ago.” It is the story of real historical people who lived in a real time and place. The Genesis 5 genealogy also helps to connect the creation event with Noah and the deluge. The time from Adam to Noah spans 1,656 years. The antediluvian period is a deeply mysterious one and so it is helpful to know a little about the men who lived through it. It also serves to reinforce our trust in God. He made a promise to Adam and Eve that a saviour would come through their line. Even when the first son of promise Abel was killed God remained faithful to His word.

The genealogy in chapter 5 gives us a list of 10 patriarchs that carried the seed line of promise from Adam to Noah. These ten men were; Adam, Seth, Enosh, Cainan, Mahalalel, Jared, Enoch, Methuselah, Lamach and finally Noah. For each person in the line the bible gives us a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In each case we are told the following; the father's name, the age they were when they became a father to the seed son of promise, the son's name, how much longer they lived following this birth, that they fathered other children and the age at which they died. So although all of these men lived for many years we are only given the merest skeletal outline of their lives. Nothing is told to us about the colleges they attended, their occupations, interests, hobbies, favourite TV shows or the kind of music they enjoyed. All that we know is that these men lived long lives and had significant children who continued God's promise into the future.

The chapter ends by telling us that Noah at the age of 500 fathered three sons. They were Shem, Ham, and Japheth. It is into the world of these four men that we will immerse ourselves today.

### **복습 약속의 씨 족보**

오늘은 매우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다양한 해석에 따라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5 장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흥미와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지루하지 않았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 족보를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였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족보는 성경이 실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 장의 족보는 창조 사건과 노아, 그리고 대홍수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기간은 1,656 년입니다. 대홍수 이전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또한 족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첫째 아들 아벨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5 장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약속의 씨를 이어간 10 명의 족장을 보여줍니다. 이 10 명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렐, 에녹, 므두셀라, 라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각 인물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약속의 자손을 낳았을 때의 나이, 아들의 이름, 그 후 얼마나 더 살았는지, 다른 자녀를 두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의 나이입니다. 그들 모두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다녔던 대학, 직업, 관심사, 취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즐겨 듣던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장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갈 자녀들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장은 노아가 500 세에 세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그들은 셈, 함, 아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We turn today to one of the most enigmatic portions of scripture. It is without doubt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nd polarising. As a consequence it has gener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debate and discussion. Numerous books and articles have been written on just this one chapter alone. The main area of controversy surrounds how sons of God and giants should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There are, as I'm sure you can imagine many varying opinions. Different bible teachers and expositors, many of whom I like and respect take a different view to mine. So I am very carefully going to unpack today's verses and allow the bible to be my guide. This must always be our basis for interpretation. We must always allow scripture to interpret scripture. I encourage you



with what we read about happening in the following verse.

###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홍수 이전 시대는 1,656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초의 창조된 인간 아담 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 이어질 약속의 씨 족보였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지구상의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세기 1:28).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진지하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채우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자주 묻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단 두 사람으로 시작하여 1,656 년 동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홍수 이전 세계의 인구 증가율이 2000 년의 인구 증가율(0.012)과 같았다고 가정하면, 홍수 당시 인구는 약 7 억 5 천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 □□□□□□. 홍수 이전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고, 신체적, 유전적으로 우월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구 증가율은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증가율을 단 0.001 만 높여도 대홍수가 시작될 무렵 인구는 거의 40 억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는 연간 인구 증가율을 2%로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1,656 년 만에 인구는 10 조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So noted" p.38).

제가 이 추정치를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고대 세계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수로 인해 고작 수천 명만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을 추구하던 시대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했습니다. 이는 당시 폭력, 전쟁, 살인이 만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 증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나 둔화시켰을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의 시기에는 당연히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당시 인구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구가 상정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홍수 이전 시대에 딸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이 딸만 태어났다는 뜻도 아니고, 여아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만약 여아만 태어났다면 인구 증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강조된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묘사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 2 that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beautiful; and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of all whom they chose.

We arrive now at our first controversial verse. It is a verse that carries profound implications, and has not surprisingly occupied and absorbed interpreters for centuries. Let's dive in and see what we can discover.

We are told about a group referred to here as the "sons of God." In Hebrew this is *bene ha'elohim*. The main question in view of course is who are these "sons of God?" Throughout history three major proposals have been suggested to answer this question. There are of course other fringe ideas but due to time constraints let us focus on the three most common views. They are as follows.

#### 1 **The sons of God refer to fallen angels** (demons)

Those who hold this view argue that the "sons of God" were fallen angelic spiritual beings or demons that married and fathered children with human women.

## **2 The sons of God refer to the descendants of Seth and descendants of Cain**

Those that favour this particular interpretation maintain that the “sons of God” refers to the ‘godly’ line of Seth, and the ‘daughters of man’ were from the ‘ungodly’ line of Cain. So in this view there is nothing supernatural going on. The “sons of God” are just normal human beings.

## **3 The sons of God were tyrannical kings, rulers or nobles**

The third proposal suggests that the “sons of God” were powerful rulers or kings who foolishly declared themselves quasi-divine. It was quite common in the ancient world for rulers to declare themselves to be god or to have god-like power or authority. So again as with the previous view there is nothing supernatural here, real flesh and blood men are in view.

So which of these three views is the right one? Or, much more importantly which one lines up with God's Word. As I mentioned in my introduction let us allow scripture to interpret itself. Let's begin by looking at how the phrase “sons of God” is used by the biblical writers.

##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라**

이제 첫 번째 논쟁적인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이 구절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연히 수 세기 동안 해석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이라고 불리는 무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bene ha'elohim 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소수 의견도 있지만, 시간 관계로 가장 일반적인 세 견해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의 아들들은 티락한 천사 악마를 가리킨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존재인 티락한 천사 또는 악마로서 인간 여성을 아내 삼아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 **2.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

이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혈통을,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혈통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 **3. 하나님의 아들들은 폭군 왕 통치자 또는 귀족이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선언한 강력한 통치자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흔히 통치자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하거나 신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 또한 초자연적인 요소는 없고, 실제 삶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들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더 중요하게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까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봅시다. 먼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Sons of God in scripture**

The phrase “sons of God” appears on a number of occasions in Scripture. It can be found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Let's consider first its usage and meaning in the Old Testament.

The “sons of God” (*bene ha'elohim*) are referenced a number of times in the Old Testament. The most significant mentions occurs in Job, the oldest book of the bible (1:6, 2:1, 38:7). They are also mentioned in Psalm 29:1 and 82:1 in both these instances the NKJV refers to them as “mighty ones.” Let's look at two of the verses that mentions them in Job.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Job 1:6)**

This verse is describing a “meeting” that took place in God's throne room in heaven. This event, note very carefully is taking place in the unseen spiritual realm. A group of spiritual beings referred

to as “sons of God” including Satan came before the Lord to report on their activities. Let's look at another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sons of God shouted for joy? (Job 38:7)**

In this passage God is questioning Job as to where he was at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 time before human beings were created. The answer of course is that Job was nowhere, no human being was present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refore Job as a mere creation has no right or justification in questioning God. But most importantly as regards the issue at hand we learn that God was not alone at this time. As God's amazing creation took shape before their very eyes the “sons of God” shouted for joy.

So when we carefully examine the term “sons of God” in context we can only conclude that it is being used to refer to angels or spiritual beings in the Old Testament. For very obvious reasons human beings cannot be considered. Now I am not a Hebrew scholar, and would never claim to be one. However let me quote from someone who is. This is what eminent Hebrew scholar Dr Arnold Fruchtenbaum has to say

*The sons of God in Hebrew is bnei ha-Elohim. This term, in the Hebrew Bible, is always a reference to angels, both good and bad ones. Nevertheless, some wish to make Genesis 6 the one exception. However, it is not wise to make exceptions unless there are very good exegetical reasons to do so, and there is no good reason to make this one passage the exception to the rule. (Ariel's Bible Commentary: The Book of Genesis, 1st ed. p.145)*

When we look at the term as it is used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we see something different. Once again we must read carefully in context and allow scripture to interpret itself. On a number of occasions the New Testament writers use the term “sons of God” (Matt 5:9, Luke 20:36, Gal 3:26, Rom 8:14). Let me read a couple of examples from two Pauline epistles.

**For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Gal 3:26)**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Rom 8:14)**

In these passages the Apostle Paul is clearly not talking about angelic spirit beings. He is quite clearly addressing fellow believers. As I'm sure you are all well aware the Old and New Testaments were written in different languages. This means that there is no linguistic connection between the thought here in Greek and the Hebrew of the Old Testament. The term “sons of God” might be the same in our English bibles but the context is very different.

So when Paul speaks about “sons of God” he is talking about believers in Jesus Christ. He is addressing the new and wonderful relationship we can now enjoy with God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s completed work on the cross we are given the privilege of being adopted into God's family. Through our faith and dependence upon Him, we are adopted as sons and daughters into His family unit. The key idea that the New Testament writers are pushing is that faith in Christ is the key to becoming a "son of God." Our relationship to our Lord and saviour transcends ethnic, social, or cultural barriers. That is why although our ethnicity and backgrounds differ I can rightly call you my “brother” or “sister” in Christ.

So when we allow scripture to interpret itself we can clearly determine in context which view to take. Here in Genesis chapter 6 the “sons of God” are angelic spirit beings, or demons.

This has always been the most widely understood interpretation. This was how New Testament writers such as Peter (2 Peter 2:4-6) and Jude (Jude 6-7) understood the term. They knew that it referred to rebellious fallen angelic beings. It was also the view of the majority of ancient Jews, who translated the phrase as “angels of God” in their Septuagint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Other notable ancient writers including Philo of Alexandria, Flavius Josephus, Clement of Rome and Tertullian also held this view.

The apocryphal books of Enoch also endorse this interpretation. I should just highlight that this is

not inspired scripture. But in First Enoch, the “sons of God,” who go by the name “the Watchers,” not only descend to mate with women but also to teach people forbidden knowledge such as warfare, magic, sorcery, and seduction.

So now that we have established that we are speaking about spiritual beings we are now faced with further questions. Who exactly are these “sons of God?” And what are they attempting to do?

Lets deals first with the “who.” The bible tells us that God created angelic beings to serve and worship Him. However sometime very soon after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re was a massive angelic uprising. It was led by Lucifer later to become known as Satan. He persuaded a third of the angels to join him and they were cast down from heaven to earth. It is these rebellious angels or demons that are in view here.

Now we can turn to the “what.” What is their goal or purpose? Genesis chapter 6 informs us of Satan's forces first full scale invasion into human affairs. As we have seen in previous studies Satan himself came into the garden and confronted Adam and Eve. On that occasion he acted alone. Now Satan is mobilising his full demonic army. This is the beginning of his ongoing war against mankind. What we may ask is his objective? Well let's read the verse again and see.

**The demons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beautiful; and they took wives for themselves of all whom they chose.**

Satan's plan involves corruption or pollution. To understand his thinking we need to go back to Genesis 3:15. This as I told you several sermons ago is what is known as the protoevangelium, the first gospel proclamation. God prophesied against Satan telling him that his doom would come from the Seed of a woman. Satan is not keen for this to happen. So his thinking seems to be that if he can prevent the arrival of this Seed, then his career would be eternally safe. If he could just corrupt or taint the seed line of promise all would be fine. The problem is that he has no clue about which woman would bear this seed. He may be powerful being but he is most definitely not omniscient.

So what can he do? His solution was to send his demonic agents to marry and then impregnate human women. This would lead to tainted or defiled offspring. It's a truly dastardly and wicked plan. To corrupt human beings created in God's image so that they are now corrupted.

How you might be wondering did this actually transpire. Again there are differing views. Some believe that these demonic entities who exist in spirit form assumed the appearance of human me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feat. We know from several places in scripture that angels can appear in human form (see Gen 18:1-2, Judges 13:2-23, Luke 1:11-13, Heb 13:2).

Others think that the demonic spirits entered into regular human males and possessed them. They could then manipulate them into doing their bidding. Again we see this occurring on a number of occasions in scripture (Matt 8:16, Mark 1:34)

At this point some raise a very practical objection. The objection centres up what Jesus said about angels in Matthew's gospel. It concerns their ability to procreate with human beings. Let me read the passage in question.

**29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You are mistaken, not knowing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30 For in the resurrection they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but are like angels of God in heaven. (Matt 22:30)**

Look carefully at what Jesus says. He does not say that angels cannot marry, only that they do not. We should also note that marriage is not the same as sexual relations. Jesus' words do not necessari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angels could assume physical form and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Also note that Jesus refers to “angels in heaven,” not fallen angels. Fallen angels by definition are rebels who do not care about God's created order and who actively seek ways to disrupt God's plan. The fact that God's holy angels do not marry does not mean that demons cannot pervert sexuality in this world.

This is exactly what they did. Demons came to earth, possessed human males, married beautiful women and impregnated them. Only this explanation for what happened can properly account for

God's response. God could not sit back and tolerate this abomination. Let us find out about that now.

###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용법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bene ha'elohim)은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언급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에서 등장합니다(욥기 1:6, 2:1, 38:7). 사편 29:1 과 82:1 에도 언급되는데, 신개정역(NKJV)에서는 이들을 “mighty ones”로 번역했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다”(욥기 1:6)**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일어난 “회의meeting”를 묘사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을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가뿔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가뿔 소리를 질렀나니”(욥기 38:7)**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 인간 창조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욥은 어디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불과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할 권리나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뿔하며 소려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천사 또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로 인간은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학자가 아니므로 저명한 히브리어 학자 아놀드 프루텐비움 박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브네이 하엘로힘(bnei ha-Elohim)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용어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모두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창세기 6 장을 예외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해석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예외를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이 구절을 예외로 삼을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아리엘의 성경 주석 창세기 1 판 145 쪽)*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문맥을 주의 깊게 읽고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 저자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마태복음 5:9, 누가복음 20:36, 갈라디아서 3:26, 로마서 8 장 14 절). 바울 서신 두 곳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갈라디아서 3 장 26 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로마서 8 장 14 절).**

이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동료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과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 사이에는 언어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라는 용어는 같지만, 문맥은 매우 다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



른 이들은 악령들이 인간 남성에게 들어가 빙의하여 조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마태복음 8:16, 마가복음 1:34 참조).

이 시점에서 어떤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천사들에 대해 하신 말씀, 즉 천사들이 인간과 교미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sup>30</sup> 부활 때에는 장기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22:30)**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사들이 결혼할 수 없다고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 성관계와 같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사들이 육신의 형체를 추하고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언급하셨지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실이 악령들이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 왜곡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악령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와서 인간 남자들에게 들어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 삼고 임신했습니다. 이러한 설명만이 하나님의 반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죄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3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for he is indeed flesh; yet his days shall be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This is another fascinating verse which has been much debated. What is indisputable is that it is telling us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God's patience. God is frequently very patient, indeed He is described in the bible as being long-suffering (Exo 34:6, 2 Pet 3:9). But, and this fact is critically important. God's patience does have an end. It does not endure permanently. Eventually He says, enough. I'm now going to pass my judgment. That is what we are reading here.

God is saying that that His time of patience has now come to an end. He is now imposing a “time constraint” on human beings of 120 years.

What exactly does this “time constraint” mean? Some argue that God is now placing a limit on human life spans. Prior to this time people lived for a very long time. The average life span for the 10 patriarchs from Adam to Noah was 857 years. But from this time forth human beings will only be able to live for up to 120 years. Whilst it is certainly true that we do see a very clear and discernible decline in life spans following the flood this was a gradual process. It was far from being instantaneous. Abraham for example, who came along 400 or so years after the flood lived to be 175! So is there a better explanation for this 120 years? I think there is.

The 120 years mentioned here I believe refers to how long it will be until the flood. God in His mercy is allowing this wicked generation 120 years to repent of their sins and turn to Him. But when that time is up He will act. He will wipe those who He deems unrighteous off the face of the earth. They perhaps thought that interbreeding with demons made them special or afforded them supernatural powers but as God points out here man always remains flesh.

What a sobering thing that is to think about. That eventually God will say, “Your times up, you had ample time to confess and repent. You chose not to do so now you must live with the consequences.” So I urge you all to take what I have just said to heart. If you are living in sin or rebellion against God repent of it right now. Fall into His loving and merciful arms and do not wait for His divine judgment to fall.

Let us read on.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

## 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며, 성경에서는 그분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출애굽기 34:6, 베드로후서 3:9). 하지만 또한 지극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충분히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120 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십니다.

이 "시간 제한"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 시대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 대 족장의 평균 수명은 857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최대 120 년으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이후 수명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지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후 약 400 년이 지나 태어난 아브라함은 175 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 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급된 120 년은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120 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악한 자들을 땅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와 교배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존재일 뿐입니다.

□□□□ □□ □□ □□□□. 결국 하나님께서 "네 시간이 끝났다. 회개하고 고백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 There were giants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o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men of renown.**

We arrive now at another exciting and controversial portion of scripture. We are told here that there were giants roaming about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later.

Have you ever met a giant? Giant stories and legends have proliferated through all cultures. I love stories about people discovering giant skeletons or bones that science is unable or unwilling to explain.

I once worked with a Canadian called Ollie. He was over 200 cm tall. Not only was he exceptionally tall but he was broad as well. He had wide shoulders and a barrel like chest. When I read or hear the word "giant" I automatically think of Ollie.

There has of course been other very tall people in recent history. On the screen you can see two "giant" men. On the left we have Robert Wadlow he grew to be 8 feet 11 inches tall (272 cm). He holds the record for being the tallest verifiable human being on record. He died in 1940 aged just 22. The tallest human being alive today is Sultan Kösen. He is on the right of the screen. He is 8 feet 3 inches (251 cm) tall.

So when we read the word "giant" in our bible is that we are to imagine? Human beings who are just considerably taller or bigger than average sized people. Let's investigate.

The Hebrew word used here for "giant" is the word *Nephilim*. The word is only found twice in the bible here and in Numbers (13:33). In Numbers, we are told about the Israelite spies who prior to the conquest were sent to collect intelligence on the Promised Land.

They are most perturbed to discover that a race of giant men (the Nephilim) who made them look like grasshoppers were already occupying the land.

The term *Nephilim* means “fallen ones,” possibly relating to their partial parentage from fallen angelic beings. Other commentators suggest that it is a description of what they could do. They are called the “fallen ones” because they are so strong that they cause others to fall down!

The Nephilim were the children born to the ungodly union of human women and demonic beings (the sons of God). The offspring produced from this coupling were a race of mighty men, men of renown. In modern parlance we might refer to them as warrior types who were both large in stature and physically powerful. But just how big they were? Were they really gigantic?

The bible tells us about some very big individuals. The most famous biblical giant is Goliath. He is described in 1 Samuel as being "six cubits and a span" tall (17:4). This would make him approximately 9 feet 9 inches (300 cm) tall. He'd be a useful addition to your basketball team! Or what about King Og of Bashan. He was another giant mentioned in Deuteronomy chapter 3. We are told that he had a bed that was 13 feet (396 cm) long. He may have just enjoyed having an exceptionally long bed but it is more likely that he was a very tall man. But what about giants reaching 9, 10 or even 18 metres in height? Such a thing is suggested in the Book of Enoch.

In reality the idea of truly gigantic people becomes anatomically problematic. The reason for this is what is known as the square-cube law discovered by Galileo. The law states that as the size of any object grows, its volume grows faster than its surface area. The area grows in proportion to the square of your size, whereas your volume scales up in proportion to the cube of your size. When anything is scaled up by factor N, its area is correspondingly scaled up by N<sup>2</sup>, while its volume increases by N<sup>3</sup>. This would mean that a human scaled up four times would have a skeleton and muscles 16 (4<sup>2</sup>) times stronger than an average sized person. But these would have to cope with a mass 64 (4<sup>3</sup>) times greater. Such a human would have four times as much weight for his bones and muscles to cope with. So in all probability an 18-metre tall giant would simply collapse under his own weight. Hardly then the definition of a mighty man of renown.

So disappointing as it may be the bible is probably not talking about truly gigantic people. But nonetheless we should imagine tall and physically impressive specimens.

Let us continue.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 giants 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구절 또한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거인들이 땅에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거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거인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은 모든 문화권에 걸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인의 해골이나 뼈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예전에 캐나다인 올리 Ollie 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2 미터가 넘었습니다.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체격도 좋았습니다. 어깨가 넓고 가슴은 드럼통 같았습니다. 저는 "거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절로 올라가 떠오릅니다.

물론 최근 역사에도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두 명의 "거인"이 보입니다. 왼쪽은 로버트 외들로로, 키가 272cm(8 피트 11 인치)였고 기록상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는 1940 년 22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술탄 코센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의 키는 8 피트 3 인치 (251cm)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거인"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를 떠올려야 할까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인giant"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프림Nephilim* 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만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구절이고 다른 하나는 만수기(13:33)입니다. 만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에 약속의 땅에 보낸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질 정도로 커다란 거인족(네프림)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네프림*이라는 용어는 "타락한 자들fallen ones"이란 뜻인데, 아마도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그들의 능력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네프림은 인간 여자와 악령(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의 불경스러운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용사들, 명성이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키가 크고 육체적으로 강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거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매우 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속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 장 4 절에 그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17:4)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의 키가 약 3 미터(9 피트 9 인치)에 달했습니다. 농구팀에 합류한다면 꽤 유용한 선수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3 장에 언급된 거인 바산 왕 옥 Og 은 어떻습니까? 그의 침대 길이가 396cm(13 피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긴 침대를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키가 매우 컸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키가 9 미터, 10 미터, 심지어 18 미터에 달하는 거인은요? 에녹서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인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갈릴레오가 발견한 제곱세제곱 법칙the square-cube law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는 표면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표면적은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부피는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어떤 물체의 크기가 N 배로 커지면 표면적은  $N^2$  배로 증가하고 부피는  $N^3$  배로 증가합니다. 즉,  $4^2=16$  배인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골격과 근육이 16 배( $4^2$  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덩치는 64 배 더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몸무게는 골격과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4 배나 더 무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18 미터 키의 거인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명성이 자자한 위대한 용사라고 불리지 못할 것입니다.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인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뛰어난 사람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5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This verse paints a vivid and tragic picture of what life was like in that time before the flood. Human wickedness was all pervasive. We are told that every intent of man's thoughts and heart were bent towards evil continually. How, you may ask did this wickedness manifest itself? It could be witnessed in some of the following ways.

- Sexual perversion (Genesis 6:2).
- Widespread demonic influence and activity (Genesis 6:2).
- Constant evil in the heart of man (Genesis 6:5).
- Widespread corruption, murder and violence (Genesis 6:11).

What we learn here reveals to us that every aspect of man's nature had been thoroughly corrupted by sin.

This does not mean that his entire life was focused upon sin, but rather that no part of his life was

free or untainted by sin. God, and what He wants has been rejected and ignored.

Take another look at the list above. Does it seem familiar or reminiscent of the times we are living in today. Don't we witness all of these things running rampant today. In Matthew's gospel the Lord Jesus said,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will be similar to the days of Noah (Matt 24:36-38). So how long will God's patience last? Perhaps it will not be for all that long.

So God looks down upon the wickedness of the world He had created. He was most displeased with all He saw. What will He do? Let's read on and find out.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은 홍수 이전 시대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고 비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의 악이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의도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 성적 도착(창세기 6:2)
- 광범위한 악령의 영향력과 활동(창세기 6:2)
-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악(창세기 6:5)
- 만연한 부패, 살인, 폭력(창세기 6:11)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이 죄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어떤 부분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위의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 때가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36-38).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아마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악함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분이 보신 모든 것이 불쾌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읽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 6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The Bible very rarely speaks of God experiencing "regret" or "sorrow." Aside from what we read here we might also consider God's reaction to King Saul. We are told in 1<sup>st</sup> Samuel that the Lord regretted setting him up as king (1 Sam 15:11)

The Hebrew word that is used here for "sorry" derives from the root word *nacham*. It means "regretted," "repented of" or the state of being "moved to pity." When we read such a thing said of the Lord we need to properly understand what we are reading. Please take note of the following very carefully.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n anthropopathism. This is the attribution of human feelings or emotions to God. This is because from God's perspective he does not repent. He has never done anything for which a feeling of regret is necessary or warranted. He does not make errors or mistakes. So God is not looking down on the antediluvian world and feeling regretful because He has made a mistake, or even that He wishes He had done something differently.

But equally we must also note that God is not emotionless. He is capable of feeling great pain, sadness and unhappiness at any given situation without this implying any error on His part.

For example if you've ever had to take your child to the dentists and they've had to undergo a painful treatment how do you feel? You feel grieved or saddened by your child's pain and

discomfort, but you are under no illusion that visiting the dentist was the wrong decision. You did not make an error in bringing your child to see the dentist.

So God looks down upon this troubled and corrupt world and is rightly very unhappy with the current state of man. Man's heart was fixated upon evil, but God's heart grieved at the lack of repentance and remorse shown by His creation. Drastic action is called for.

##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 was sorry 마음에 근심하시고 was grieved

하나님께서 "후회regret"나 "슬픔sorrow"을 경험하신다는 성경 기록은 아주 드뭅니다. 이 구절 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보이신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 장 11 절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regretted 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 "한탄하다sorry"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נחם(nacham)*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는데,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항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하나님께 부여하는 *인격화(anthropopathism)*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흥수 이전 세상을 내려다 보시며 자신이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다르게 행동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느끼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커다란 고통과 슬픔, 불쾌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잘못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를 치과에 데려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녀의 고통이나 불편함으로 슬프겠지만, 치과에 데려간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치과에 데려간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을 내려다 보시며 인간의 현 상태에 대해 당연히 매우 불쾌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회개와 뉘우침을 보이지 않는 것에 슬퍼하십니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 7 So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oth man and beast, creeping thing and birds of the air,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We arrive here at one of the most chilling verses in all scripture. The Lord has determined to destroy all living things. He is sorry that He has made them. They are all to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The word "destroy" here in the original Hebrew is the word *machah*. It means to "blot out," "wipe out" or "erase totally." It is scary language indeed. We are all rather fond of the idea of a cuddly grandfather like God. But to only see Him like this is to ignore the many faceted dimensions to His character.

So let's address the questions you may be thinking.

Was God being unnecessarily cruel and vindictive? Did all the people really have to die? And why did the innocent animals and birds have to perish?

Was God mean or heartless to order the flood? The simple answer is no. God is always righteous and just. In the same way that we expect a judge in a courtroom to punish wrongdoers we should also expect God to do the same. As we have seen all of humankind at that time were wicked and depraved. They had all rebelled and rejected God. Their rightful punishment for this free will choice was death. This remember came through the ruling not of a limited fallible human judge but through God who knows the heart's true intent. This means that we can be assured that the ruling was just and fair. Understanding this also helps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was it necessary for all the people to die. The answer is once again, yes. God assessed and passed a ruling on each and

every person. He does not make mistakes. Only the guilty perished.

The issue over the deaths of the animals and birds is a little more difficult to answer. Animals as we saw in previous studies were under the dominion or control of human beings. So maybe they are included here as part of the punishment being handed down to mankind. They were part of that sin-infested pre-Flood world and God wanted a fresh start. Others have suggested that they too had become corrupted or defiled. They may have been used in sinful ways, experimented upon in an obscene manner or used in pagan sacrifices. Whatever the real reason was we can be sure that God acted in a just and fair way.

Let us conclude our study with the following verse.

**7 이르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destroy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섬뜩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모든 □□□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다 destroy"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마하(machah)입니다. 이는 "지워버리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애로운 할아버지처럼 □□□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만 보는 것은 그분의 다면적인 성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고 보복적이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정말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죄 없는 동물과 새들까지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명하신 것이 잔혹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벌하기를 기대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당시 인류는 모두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부했습니다. 자유 의지로 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한계가 있고 오류 투성이인 인간 심판자가 아닌 인간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그 판결이 정당하고 공정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됩니다. 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죄인들만이 멸망했습니다.

동물과 새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보았듯이 동물들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의 일부로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 찬 홍수 이전 세상의 일부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또한 타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이 죄악된 방식으로 사용되었거나, 음란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거나, 이교도 제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행동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We end today with a note of hope. Through all the wickedness, darkness and evil one little lamp shone bright. The one and only righteous exception among all mankind was Noah. The name "Noah" means "rest" or "comfort." What a comfort it is to mankind that Noah remained committed and faithful to God. The word "grace" here is the Hebrew *chen* (pronounced khan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is word appears in scripture. I also want you to notice where this grace came from. It does not say that Noah worked hard and earned it. Rather it says that he found grace. Grace or God's unmerited favour can never be earned. It is only ever a gift bestowed by God.

So our passage ends today with God finding one man through whom He can work. That one good man will be enough.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in more detail at Noah.

##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온갖 악과 어둠과 죄악 속에서도 작은 등불 하나가 밝게 빛났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웠던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또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한신하고 충실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chen* 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주목하십시오. 노아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는 결코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노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연구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Living to please God

Human beings tend to increasingly dislike or shy away from binary choices. In the past we could state that something was right or wrong. But now things are subjective, a matter of personal opinion. What is right for you might be wrong for me and that's just fine. But when it comes to our walk with the Lord it really is binary. Are we walking with Him or not, there is no grey area. We are either living to please Him or we are not. If we are putting ourselves first and doing what makes us happy then we are carnally minded. It is our flesh that is motivating us. Living like this is displeasing to the Lord. This was how the world was living at the time of Noah. A world that God decided to blot out. It's exactly how most of the world is still living. A world in which people are selfish, lustful, stubborn, motivated by greed, violent, abusive, unloving and cruel.

None of these things should ever be said about us.

We are I hope a people who profess to love and serve the Lord. Let us all then strive to move away from the desires and cravings of this wicked world, and focus our hearts and minds on God and the things of God. May we all live to please God.

#### 1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인간은 점점 이분법적인 선택을 싫어하거나 피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서는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거나 또는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고, 화색 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또는 아닌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세상이 살아가던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고집스럽고, 탐욕에 의해 움직이고, 폭력적이고, 학대적이고, 사랑이 없고, 잔인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악한 세상이 완하고 갈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 **2 Living like Noah**

Imagine if you will what life must have been like for Noah. The bible tells us that he was a good and righteous man. I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maintain that godliness surrounded as he was by all that wickedness. Hey, Noah we are off to the bar, the casino, the strip club won't you come and join us? Don't be such a "party pooper." Your God won't mind if you have fun once in a while. And yet through the grace of God Noah was able to stand firm and resist. He didn't allow the filth of his world to make him dirty.

So there is much we can learn from observing Noah. We, too, face the lures and temptations of this fallen world. Lord give us strength we pray to stand firm, to live for you and in doing so shine the light of Christ into a lost and dark world.

## **2 노아처럼 살기**

노아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온갖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노아, 우리 술집, 카지노, 스트립 클럽에 갈 건데 같이 가지 않겠나? 분위기를 망치지 마. 너의 하나님도 너가 가끔 즐기는 걸 용인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굳건히 서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주님,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을 위해 살고, 길을 잃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